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100년농협



2025
APEC
INCHEON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세계 최대 비즈니스 허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천루 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1285호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구속 면한 이재명 대표, 내일 ‘대장동·위례’ 첫 재판 출석

공판기일 변경 신청했으나
재판부서 불허

구속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4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 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



구속영장 기각…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공판 준비절차가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이달 6일로 미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

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 최원석 기자

김행 “내 경력 40년,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꾀업했다고 하느냐”

인사청문회서 ‘김 여사 인사 배후’ 주장에 억울함 토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꾀업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발언에 이같이 답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문화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고, 기업인이지 않으냐. 어떤 사람이 했던 역할과 성과는 그 사람이 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해명은 장관 후보자 지명 인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그분(김건희 여사)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고, 저는 제가 나

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사로부터 꾀업이 됐다. 지인이 겹칠테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코인 보유 의혹과 성범죄 보도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별도 답변 기회를 주며 엄호하는 한편 야당의 질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며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 어뷰징(조회 수 조작)까지 했고,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해명은 장관 후보자 지명 인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하자 “이것으로 돈 벌었다. 거짓말하지



답변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말라”고 물어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는 코인뱅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과거 위키트리가 게시한 성범죄 관련 기사를 거론, “여성 인권이나 2차 피해는 개의치 않고 조회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라는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여성가족부 공직까지 맡겠다는 것은 욕심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별도 해명 기회를 제공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 민성윤 기자

정부, 다음 중 응원 사태에 “매크로 악용 막도록 제도 정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다음’ 포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여론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해 “매크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중국 8강전에서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이 한때 90%를 넘었던 사건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한중전 응원 결과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로를 악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환경을 없애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지 않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문혁 기자

이균용 “사법부 공백 길어지면 기능 마비 우려…봉직 기회 달라”

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가결 요청…“지적과 비판 겸허히 받아들인다”



답변하는 이균용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정, 현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 인식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재차 몸을 낮췄다.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하여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제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율리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으로 충실히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끝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 송원기 기자

계획에 없던
질병, 사고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현대해상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플랜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유인촌 “예술인 위한 창작환경 조성…잘할 곳에 확실히 지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내년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유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예술인들이 꿈을 꽂을 수 있는 도전과 혁신의 창작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청년예술가와 청년의 인재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혼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일자리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또한 계층,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타파하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장관 재임 시절에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나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



선서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았다”며 “지역문화를 꽂피우고 사회 취약 계층이 문화를 더욱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도록 콘텐츠 지원 전략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지원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저작권 등의 쟁점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겠다”며 “창작자와 이용자가 공정하게 상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체육 분야 과제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낡은 관행을 혁파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인 국제대회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관광 분야에 대해선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적극 추진해 내년에는 방한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지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을 달성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 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尹대통령 “750만 동포가 뛸 운동장 세계 곳곳에 넓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

을 맞아 “120년에 걸친 우리 동포들의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이민사, 경제사를 썼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량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재일동포 3 세 배우 박소희 씨는 이날 이민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았으면서도 한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당당히 살아온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현장의 박수를 받았다.

**동포청 출범후 첫 한인의날 기념식 참석
연일 재외동포 끌어안기**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세계 한인의 날 행사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세계 곳곳에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온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은 이 드라마에서 둘째 아들 모자수 역으로 열연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효준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국민훈장 무궁화장), 오유순 벤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 운영위원회 명예관장(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대통령 표장) 등 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재외동포 관련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와 가족 85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으며 전날에는 국내·외 거주 중인 과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0명을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 황순길 기자

정부 “日오염수 2차방류 시작에 우리 검토팀, 모니터링 진행중”

회석설비 들뜬 현상엔 “방류에 문제없어 보여…현장 파견자가 추가 확인키로”



우리 해역 방사능 조사 확대 설명

정부는 5일 오전 시작된 일본 후쿠시

마다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힘과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검토팀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

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힘과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힘과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힘과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L)당 700베크렐(Bq) 미만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방류 이후 일본이 계속 삼중수소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추가 측정을 진행하며 그 분석 과정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참여하는 형식을 논의 중”이라며 “또한 일본이 내놓은 결과는 정부가 사후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방류 이후 진행된 시설 점검에서 원전 히석 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뜰뜨고 부푸는 현상이 확인된 데 대해서는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장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를 통해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은 ‘빗물 유입이 원인일 가능성성이 크다면 도장 균열이 없는 등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국장이 전했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은 추가 방수 도장을 해서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방수 도장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빗물 침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 “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된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한 오염수 브리핑을 다음 주부터 주 2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박구연 차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정부 대응 역량 집중 차원에서 대면 브리핑 횟수를 주 2회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 등 일일 단위 취합 정보는 매일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방류가 완료되거나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요 상황 시에는 별도 브리핑을 할 방침이다.

/ 김강우 기자



**독서의 계절.
1kWh 줄이기로부터 시작**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TV와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은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하루 1kWh 줄이기를 실천해보세요.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kWh 줄이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 0.32 kWh/일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지원

피해자 회생·파산·손배상청구 등 법률비용 250만원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분 합산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지원책이다.

기준에는 부분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이용할 수 있었다. 2억4천만원 대출해줬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금도 늘린다.

저리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 저리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1억3천만원으로 높이되,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천만원 이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규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

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그 외 소송에 필요 한 인자·송달료, 기타 실비 등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빌라왕'으로 불리다 사망한 김모(42)씨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의 여러 조치들이 무용지물에 가까워 김씨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되거나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도 개

발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어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 전까지 우편 송달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저리 대출 소득요건 완화, 소송 절차 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공개'를 받아들였다.

위원회 운영 규정을 고쳐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한 뒤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현민 기자



서울 강서구 대방건설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에서 김기현 대표(왼쪽)와 김 후보가 대화하고 있다.

김기현 "대통령과 핫라인 있는 김태우 돼야 강서 쾌속발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일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대통령과 핫라인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선은 일 잘하는, 국민 심부름을 할 머슴을 뽑는 선거, 국민이 원하는 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김포 이전 합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 9개 유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며 방화역 5호선 차량기지 및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김포 이전 합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 9개 유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김 후보가 당선되면 강서구에 모아타운을 4개 더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서울시장과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장기집권 기간 전전긍긍하며 풀지 못했던 굵직한 과제들을 속 전속결로 풀어낸 김태우 후보가 당선돼 민선 8기 임기를 온전하게 채우게 되면 강서는 쾌속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

려면 대통령,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며 방화역 5호선 차량기지 및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김포 이전 합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 9개 유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김 후보가 당선되면 강서구에 모아타운을 4개 더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서울시장과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장기집권 기간 전전긍긍하며 풀지 못했던 굵직한 과제들을 속 전속결로 풀어낸 김태우 후보가 당선돼 민선 8기 임기를 온전하게 채우게 되면 강서는 쾌속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성호 기자

한일,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지역·국제문제 공조 모색

한일관계 복원후 소통채널 잇따라 재가동…日차관, 박진 외교장관 예방도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5일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양국이 현안 중심의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됐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2014년 10월 제13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양국이 올해 3월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통해 관계를 복원한 이후 여러 전략적 소통 채널을 재개동하기로 하면서 재개됐다.

지난 4월에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5년 만에 개최된 바 있다. 최근 한일 정부는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속히 재편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질서 환경 속에서 양국이 공조할 부분이 많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이날 전략대화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역내 문제와 글로벌 과제 등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부와 외무성에서 한일 양자관계뿐 아니라 북핵·북한 문제를 다루는 부서 관계자들도 배석한 만큼 북한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예상된다. 오카노 차관은 장 차관과 전략대화를 가진 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예방한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양국이 전략적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백경준 기자

김어준 '한동훈 엑스포 유치 출장' 비판에…법무부 "허위 편웨이"

"국익 저해하는 허위 주장…필요한 조치 할 것"

법무부는 5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의 부산 엑스포 유치 출장을 비판한 데 대해 "정략적인 이유로 범정부 차원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편웨이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허위 주장은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 국무위원이 임무를 부여받아 세계 각국을 상

대로 유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마치 법무부 장관만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겹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이 부산의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을 위해 방문했던 몰타가 한국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왜 법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외무부 장관을 거기까지 가서 만납니까",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김씨의 방송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홍명섭 기자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소식이 되자

아플 때, 걱정될 때 생각나는 보험을 넘어
언제라도 반가운 보험이 되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당신의 인생에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광고의 모든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삼성생명

Samsung
Financial Networks

이재명 “강서 보선, 특정 멤버 출발점”…병상서 사전투표 독려

보선 옛새 앞두고 환자복 차림으로 당원들에 영상 병상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선을 옛새 앞둔 이날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는 6~7일 이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4일간의 단식 후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6일과 7일 이를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해달라”며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 이성환 기자



빠짐없이 동참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시대전환, 이르면 11월말 합당”

“이재명의 민주당 보며 절망…노사모가 개딸처럼 맹목적 추종 하던가”



합당을 선언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1일 강서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행 서약식에서 김기현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진행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일 “당현과 정당법상 절차가 복잡해 빠르면 11월 말 정도 (합당 절차가 완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합당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합당 조건에 대해선 “전혀 그런 거 없다. ‘몇 자리를 약속받았다, 제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뉴스가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정 생활 3년 반을 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서 절망했다”

고 말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나.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가 개딸처럼 맹목적 추종을 했나.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민주당과 너무 다른 민주당이다”라고 충격의 3년 반을 보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해 ‘범야권 인사’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자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다른 길을 걸었고, 지난 달 21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 강희찬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재옥 “대법원장 공백 피해자는 국민 野 반대는 정부 발목잡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는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단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75년 현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라”고 거듭 요청했다.

/ 송유영 기자

홍익표 “이균용 임명동의 부결될듯…부적격 추천尹 책임”

與 포털 여론조사 의혹 제기에 “정치 쟁점화 의도…자칫하면 언론 재갈 물리기”



의 생각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이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반국가세력 개입설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정부 여당이 이 사건 자체를 정략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자칫하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대해선 “내년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면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복귀 메시지나 복귀 시점에 대해선 “하나는 당의 쇄신, 혁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통합과 비전”이라며 “아마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당무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김학성 기자

尹대통령, 신원식 인사청문 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국회 합의 불발시 보고서 없이 임명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다.

국회가 이번 기한에도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



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서종익 기자

'尹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기자 "검찰·JTBC가 사건 기획"

봉지욱, 포렌식 조사 출석…“조우형,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한 몸”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봉지욱 기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JTBC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봉 기자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조사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선 공작”이라는 검찰의 프레임에 JTBC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봉 기자는 당시 보도가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회의를 거쳐 나간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친 보도였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사과한다”고 JTBC를 비판했다.

보도 내용을 두고는 “검찰이 가짜라고 하면 가짜인가”

라고 반문하며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과 세탁에 관여했고, 차명 회사 4곳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분명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우형과 제가 2021년 10월 26일에 10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걸 조만간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 21일 대장동 민간기업자 남육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우형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탔었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

다. 봉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JTBC는 지난 달 6일 뉴스룸 방송에서 당시 보도가 왜곡된 보도였다며 사과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고의로 빼뜨린 채 당시 주임 검사가 윤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잡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집중하면서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권정석 기자



회식 장소에 모인 사기조직

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6월 참고인 조사 이후 두번째 소환…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2차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피의자 조사는 지난달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이 신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신 시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정자교는 총 길이는 108m이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경찰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이번 교량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성현주 기자



경찰 안보수사 역량 높인다 연구·교육센터 개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안보수사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기관이 문을 열었다.

경찰청은 5일 서대문구 흥제동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 국군방첩학교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는 안보수사과 청사 일부를 새로 단장해 총 3층, 794.1m² 규모로 조성됐다. 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조사·신문 등 실전형 교육을 위한 각종 실효성과 연구실, 안보관 합양과 비전 제시를 위한 안보전시관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센터에서 대공 전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합동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 안보수사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 안보수사관으로 거듭나려면 역량을 키워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수호에 이바지하는 선도적 인재 양성”이라는 센터의 강령 아래 안보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코인 투자손실 보상해 드려요”

71억 챙긴 MZ 사기조직

코인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하고는 또 다른 코인을 사게 하는 신종 수법으로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MZ’(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 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뒤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며 전화를 걸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환불해주고 있다”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는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또 해당 코인이 마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조만간 상장돼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중견 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또 접근했고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재차 속였다.

피해자들은 1천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산다는 팀장급 조직원의 말을 믿고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추가로

샀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은 코인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입원했다”며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주거나 싸게 판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Lock-up)돼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20~30대인 MZ 세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해 11개 팀을 운영했다.

조직원들은 스캠 코인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와 중견 기업대표를 사칭하는 팀장 등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나눴고 범죄 수익 중 5~35%씩을 A씨와 함께 분배해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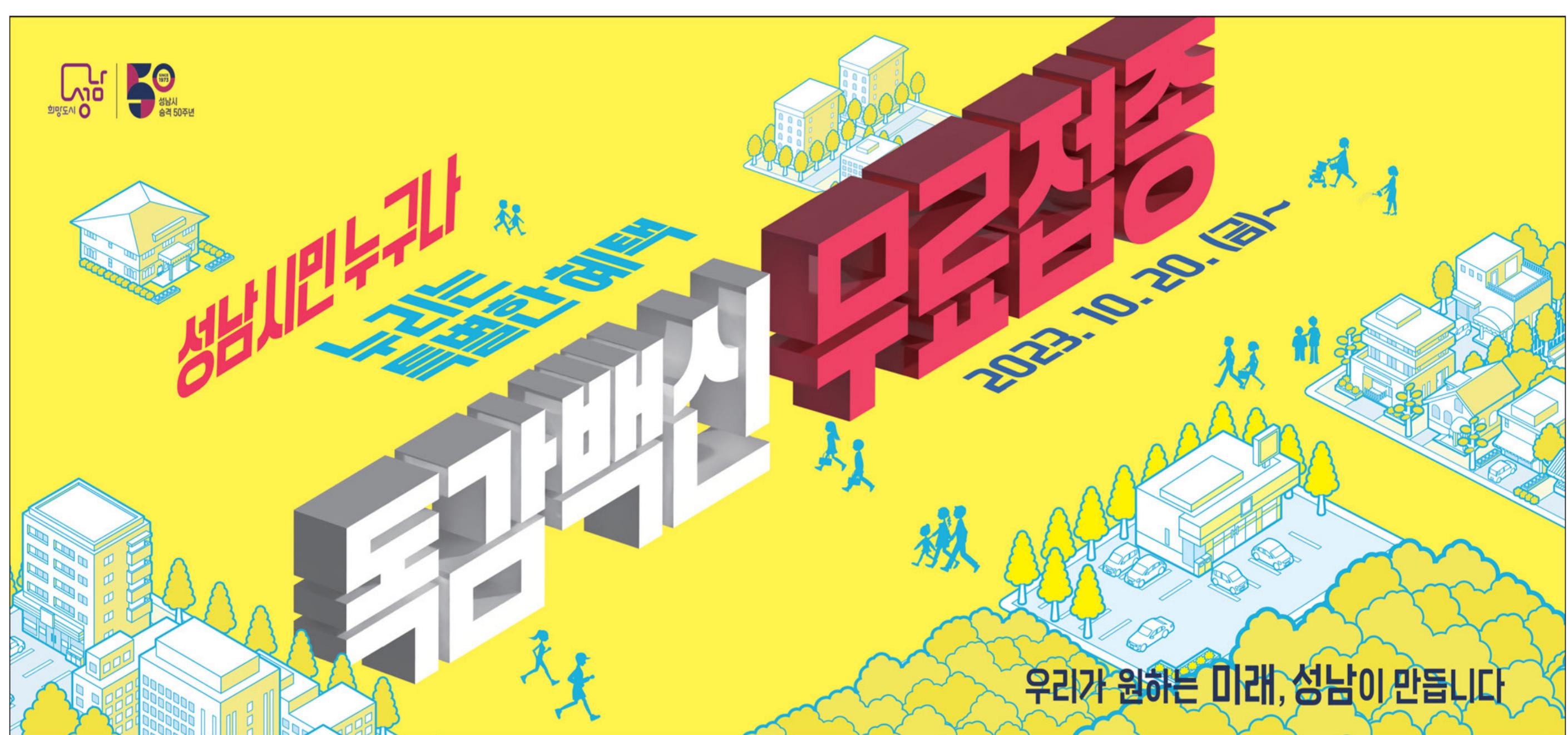
또 매일 스캠 코인 판매 실적을 A씨 등 월위선에 주기적으로 보고했으며 경찰 추적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도 수시로 포맷했다.

A씨는 또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식을 했으며 판매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이나 팀에는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코인을 이용한 사기 조직의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 동안 수사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 가운데 7억5천만 원가량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 한정수 기자



美 서열3위 하원의장에 트럼프?…트럼프 “많은 사람이 요청해와”

트럼프 “미국 위해 뭐든 최선의 것 할 것”…가능성 완전배제 안해

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공화당 내부에서 공백 상태인 의회 지도부를 메울 대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자신에게 하원의장을 권하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지는 않아 내심 기대감을 드러낸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재 하원 의원 신분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미국 헌법에 하원의장을 ‘하원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NBC 방송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을 인용,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직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임시 의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이날 뉴욕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하원의장을 맡아달라고 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라와 공화당,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의 것을 할 것이라는 말뿐”이라고 밝혔다.

하원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그는 대통령직을 되찾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하원 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로, 권력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로서 역할과 정치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구축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당내 경선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대통령 선거 본선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원의장을 맡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

족도 가능하다.

다만 역대 모든 하원의장은 현역 의원 가운데 선출됐다는 점은 ‘트럼프 하원의장’ 성사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과거에도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뉴트 갱리치 전(前) 하원의장,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원외 인사들이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지만, 실제 유의미한 투표까지 이룬 사례는 없다.

이번에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한 맷 게이츠 의원은 지난 1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선출됐을 때도 과반 득표 후 보가 없어 15차례 투표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 원외인사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트럼프 하원의장’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반응이 더 많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그가 경선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병호 기자



윤동환 방위사업청장

방사청장, 인도네시아 KF-21 연체 분담금 납부 논의

윤동환 방위사업청장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윤 청장과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은 전날 출국해 이번 주말까지 머물며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급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청장이)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대국 관계를 고려해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1천억 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 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 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

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천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천억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천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1조원 가까이 연체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포기하고 아랍에미리트(UAE)나 폴란드와 손잡을 수 있다는 의심 보도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 임경수 기자

세계 스포츠계 큰손 사우디, 2034년 월드컵 단독유치 추진

세계 스포츠계의 큰손으로 부상한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추진을 선언했다.

사우디 축구연맹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사회 경제적 변신과 뿌리 깊은 축구에 대한 열정의 영감을 끌어내 세계 수준의 대회를 개

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월드컵 축구대회 단독 유치 추진 선언은 2030년 대회 개최지를 발표한 FIFA가 2034년 대회 개최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을 거론한 직후 나왔다. 앞서 사우디는 이집트, 그리스와 함께 2030년 월드컵 3대륙 공동 유치를 추진했으나, 경쟁에서 뒤처지자 지난 6월

챌린 의사표를 밝혔다.

결국 2030년 대회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유럽의 스페인·포르투갈이 공동 개최하고,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해 개막전 등 일부 경기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우디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

세자의 ‘비전 2030’ 프로젝트를 통해 화석연료 산업 비중을 줄이고 관광과 비즈니스 협력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사우디는 자국 프로축구리그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사우디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V 골프투어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합병하면서 세계 스포츠계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 최준용 기자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서 또 현대차 철수설…“계획 없어” 입장 발표도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옛 소련에서 출생한 알렉세이 예키모프(78)가 선정되자 러시아에서는 “소련 레닌그라드 출신”이라며 환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 화학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양자점(퀀텀 도트) 발견과 합성에 기여한 문지 바웬디(62), 루이스 브루스(80)와 예키모프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예키모프는 현재 미국 나노크리스털 테크놀로지사 수석 과학자로 있지만, 옛 소비에트연방 태생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예키모프에 대해 1945년 2월 28일 출생한 러시아인 이자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 언론매체들은 “러시아인이 노벨화학상 수상”, “소련 과학자, 노벨상 수상”, “레닌그라드 출신” 등 예키모프가 소련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레닌그라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옛 이름이다. 예키모프는 1967년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주립대인 레닌그라드 주립대 물리학부를 졸업했고, 1989년 물리·수리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 과학기술 부문 소련국가상을 받은 그는 소련과학 아카데미 레닌그라드 이오페 물리기술연구소와 바빌로프 국립광학연구소에서 일하다 1999년부터 미국 뉴욕의 나노크리스털 테크놀로지로 옮겨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노벨화학상에 바웬디·브루스·예키모프

고체물리학 및 광학 전문가인 예키모프는 바빌로프 광학 연구소 시절인 1981년 세계 최초로 유리에서 작은 염화구리 결정 형태의 양자점은 만들었다.

러시아 네티즌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언론사 댓글 등을 통해 “세상을 구한 연구”, “예키모프와 과학자들 고생했다”며 예키모프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했다.

예키모프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능 있는 사람이 러시아를 떠났다”, “두뇌 유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아쉬워하는 글도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국제사회 외면을 받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 노벨상 시상식에 러시아 대사가 초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출신 과학자가 상을 받은 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 김유정 기자

힘든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각종 매체는 이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 보도하며 현대차·기아의 거취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철수설’을 반박하는 보도도 뒤따랐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현대차·기아의 러시아 공식 대표 사무소가 러시아 시장을 떠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 유지보수와 보증도 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백서연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키 국가대표 천은비 선수

하키 국가대표 이정준 선수

하키 국가대표 서정은 선수

필드를 흔뻑 적실 땀방울의 감동 플레이

COMING
SOON

환상적인 팀워크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 완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신한이 하키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탁구협회



(주)대한산악연맹



대한柔道회



대한스카협회



신한금융그룹

금융당국, 부동산PF 금융공급 점검…“사업장 애로 해소 기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점검·소통회의 개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동 노력이 확산된다면 시간을 두고 PF 사업장 애로와 주택공급 상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균 기자



우리 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 현황 설명하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해수부, 수산물 방사능 검사 1만4천건 “부적합 한건도 없어”

일본 도쿄전력이 5일 오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올 한해 1만 4천건이 넘는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올해 목표치(8천 건)를 초과한 8천69건을 달성했다. 어획 수산물 5천612건, 양식수산물 1천562건, 원양수산물 895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유통 단계 수산물 검사는 올해 1월부터 9월 26일까지 5천592건을 진행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27일까지 일 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모두 3천869건(1만7천245t) 실시했으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박 차관은 말했다.

그는 우리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해양 방사능 감시 지점을 우리 바다 전 해역의 200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가까운 바다는 월 3회, 멀바다는 월 2회 시료를 채취해 며칠 내로 신속하게 분석하는데 내년에는 감시 지점을 243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1천201개의 정기조사 시료와 1천26개의 긴급 조사 시료가 채취 또는 분석됐으며 분석 결과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의 8개 정점에서 매월 해양 방사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오문섭 기자

자정부터 아이폰15 사전 예약…통신 3사, 청년층 공략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

통신 3사는 아이폰 주요 고객인 2030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6일 0시부터 오는 12일까지 아이폰15 시리즈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각 사 공식 대리점 외에 SKT는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KT는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닷컴 홈페이지와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 ‘토스’에서 각각 사전 예약을 받는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아이폰15, 아이폰15 플러스, 아이폰15 프로, 아이폰15 프로맥스, 애플 워치 시리즈9, 애플 워치 터치 2 등이다.

아이폰15 시리즈는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C’ 충전단자를 처음 도입했다. 아이폰15와 아이폰15 플러스는 컬러 인퓨즈 후면 유리와 알루미늄 외장을 장착했고,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는 항공 우주 등급의 티타늄 디자인에 프



로급 렌즈 7개를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1차 출시국보다 3주가 늦었고 먼저 출시된 나라들에서 발열 논란이 일었지만, 흥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토스에 따르면 이 앱에서 사전 예약 오

픈 알림을 신청한 고객만 54만 명에 이른다. 특히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청년층 고객의 관심이 끼어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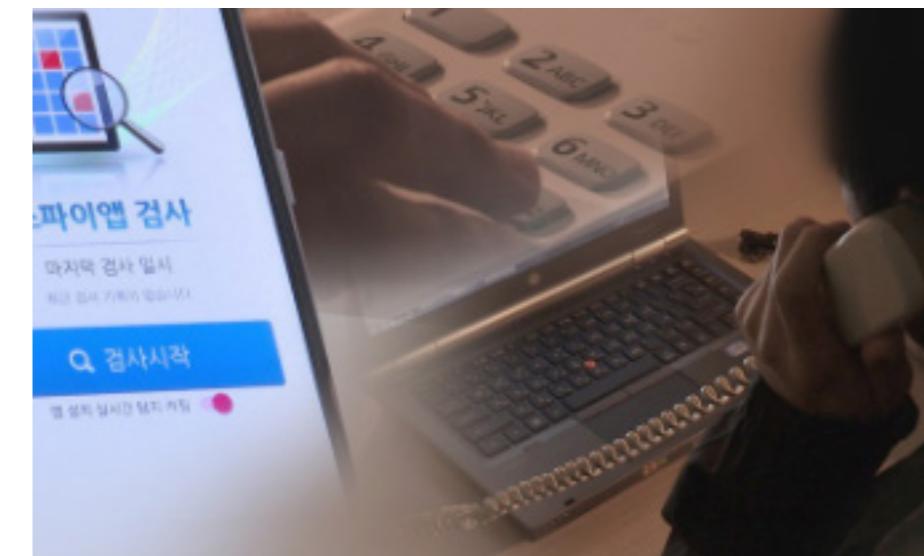
따라서 SK텔레콤은 2030 세대에서 인기가 높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함께 청년 기획전을 열어 무신사 채널에서 SKT 아이폰15를 개통하는 고객에게 할인권과 최대 30만원 상당의 무신사 기획전 아이템을 제공하기로 했다.

KT도 아이폰15 시리즈를 구매하는 10~20대 ‘Y 고객’을 타깃으로 삼아 5G 베이직 요금제 이상을 사용하는 만 29세 이하 고객(Y대 고객)에게 공유데이터 2배 혜택과 스마트기기 최대 2회선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 꽈도영 기자

비대면 금융사고시 은행 예방노력 없었다면 책임 묻는다

금감원·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많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정도를 고려해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룰’ 51개와 대응 절차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뒤 ARS, SMS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의심거래 탐지 시 화상통화, 생체인증 등 더욱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한다.

금융회사가 이상 거래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 이행되면 앞으로 국내 은행권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 룰이 공통 적용되고,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을 반영한 자체 탐지 룰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상 거래 탐지·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객이 금융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 범죄 예방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 이성훈 기자

우리마음속 첫번째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우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소상공인,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중소기업, 더 날개 돋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의 힘은 강해질 테니까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은행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너희의 도약에 국민이 함께 할게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배드민턴 선수단

더 큰 꿈을 향해가는 그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립니다

올가을, 또 한번의 희망찬 도약을 앞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을
KB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Korea Basic
KB금융그룹

KB
KB Financial Group



KB
Financial Group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안세영·공희용·김소영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수영, 배드민턴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과 유망주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KB금융그룹의 후원은 계속됩니다

KB 금융그룹

서울시, '백만 운집' 세계불꽃축제 종합지원대책 가동

7일 오후 2~11시 여의동로 전면통제…종료시각 버스 집중 배차

서울시는 오는 7일 열리는 '제19회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파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찾았던 만큼 올해도 주최사인 한화와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안전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을 26% 늘려 행사장을 비롯해 인근 지하철역 인파를 분산하고 주정차 단속 업무 등에 투입한다.

행사를 앞둔 5~6일에는 행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5일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비상 상황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현장 점검을, 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학동 현장점검을 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 할 수 있게 소방·구급차·의료인력은 행사장 내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사장뿐 아니라 수상 안전까지 관리한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순찰선 36척이 투입되고 불꽃축제가 열릴 수상 구간의 민간 보트 운행이 통제된다. 한강대교 위에 있는 노들섬은 6일 오후 10시부터 7일



서울세계불꽃축제

오후 11시까지 하단부 출입이 폐쇄되고 야외테라스 등 일부 공간도 들어갈 수 없다.

7일 오후 2~11시에는 여의동로(마포 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되며 차량을 비롯한 모든 차는 우회해야 한다.

평소 이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0개는 모두 해당 시간에 우회 운행하고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노선은 한강대교 위 전망 카페·노들섬 정류소에서 정차하지 않는다.

시는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시민이 교량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시업계에도 한강대교, 마포대교 등에서 승객을

승하차까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은 증편하고 혼잡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 시킨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귀가 인파가 신속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오후 8~10시 여의도 환승센터·여의도역(6·9호선)·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 노선을 행사 종료 시각에 맞춰 집중적으로 배차한다.

지하철 5·9호선은 승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6시부터 평소 대비 운행 횟수를 총 70회 늘리고 행사가 끝난 뒤인 오후 8~11시에는 행사장에 가장 인

접한 여의나루역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되며 주변 역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6개 역사에는 평소 배치되는 인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안전요원이 투입된다. 행사 당일에는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파랑이', 공유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씽씽) 대여와 반납도 일시 중지된다. 행사장 주변에 방치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나 공공자전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로 하면 된다.

쾌적한 축제 관람을 돋기 위해 여의도·이촌한강공원에 임시화장실 총 88동과 대형 쓰레기함, 쓰레기통, 음식물 수거함 등을 추가 설치한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주최 측 임직원 봉사단을 비롯해 약 1천 500명이 행사장 주변을 정리한다.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안전·편의를 드는 종합안내소 3개소와 운영상황 6개소도 운영한다.

행사장 화장실, 응급의료·안내소, 교통통제구간 등은 모바일웹 서비스 '스마트 서울맵'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강병문 기자



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OUT
직장감찰 조합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중소금융기관 직장감찰아웃 대책위원회 호남권모임과 전국협동조합노조 호남지역본부 등이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창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단체 “신발로 때리고 사표 강요한 축협 조합장 엄벌하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전북 순창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노동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금융기관 직장감찰아웃 대책위원회 호남권모임과 전국협동조합노조 호남지역본부 등은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A조합장을 신속하게 기소해 처벌하고, 농협중앙회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13일 A조합장은 한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며 “피해를 본 두 직원은 극심한 충격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노조는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농협중

/ 신재일 기자

‘악성민원’ 피해 대전 교사 유족, 가해 부모·학교 관리자 고소



악성민원 등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한 대전 교사의 유족이 5일 정오께 대전경찰청에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고소장 접수 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교사노조와 유족, 변호사

신문고 7회 등 총 14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고,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이후 2022년에도 같은 민원을 부모들이 동시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가해 학부모들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피해 교시를 아동학대 범죄자인 것처럼 서술하는 등 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반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인의 남편은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서 엄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며 학교폭력 가해자, 아동 폭력 가해자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한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를 만에 숨졌다.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을 제기해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 등을 지속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를 외면한 채 교육활동보다 본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학교 관리자의 태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인이 학교폭력과 아동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증언을 수집한 결과 선생님은 생애 마지막 4년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가해 학부모들이 국민

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 양희진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송파구, 임산부의 날 맞아 아기 돌보기·맞춤식단 교실

서울 송파구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오는 10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요리·태교 교실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이다.

이번 행사는 임산부의 건강을 돋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후 2~4시에 열리는 쿠킹 클래스에선 전문 영양사가 영양 풍부한 식재료를 고르는 법과 건강 식재료를 활용한 맞춤 건강 식단을 알려주고 조리법을 시연한다. 임신 중 올바른 영양 관리를 위한 상담도 제공한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는 ‘우리 아기 돌보기 교실’에선 전문 강사가 임산부 10여 명을 대상으로 출산 준비·아이 돌보기·모유 수유법·응급 시 대처 요령 등을 알려준다.



또 신생아 모형을 활용한 아기 싸기·모유 수유 실습을 하며 예비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임산부 맞춤형 요가와 바느질 태교 교실을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채정민 기자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PR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음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多5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91 이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I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평가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 혐의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초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당기 계약 할인 및 디렉트 계좌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로 원하는 만큼만 투자하자!



국내주식도 원하는 만큼
1000원 부터 자유롭게 투자 가능!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란?

금액 단위(원화기준, 최소금액 1천원 이상, 천원단위)에 따라
소수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 (1Q Stock, 1Q HTS 이용)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오픈 BIG EVENT [2023.07.20 ~ 11.30] 대상 : 이벤트 기간 내 국내주식 소수점 주문 이용 등록하신 개인 고객 (국내 거주)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마케팅(SMS)수신 동의 유지 필수

EVENT1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신청 손님 모두

국내주식 소수점 수수료
우대 혜택
0.0036% (3년간)

EVENT2

1만원 이상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손님

기본 증정 : 국내주식 매수쿠폰 5천원권 증정

추첨
1등 : 1명 [현대 캐스퍼] 가솔린 1.0 터보 인스파레이션, 카키
2등 : 3명 [아이폰15 Pro + 에어팟Pro + 애플워치] Pack
3등 : 2명 [아이폰15 Pro]



[이벤트 유의사항] *온·오프라인 이벤트가 동일하며 이벤트 신청은 1Q Stock 앱에서만 가능 *본 이벤트는 하나증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단, 기당첨 손님 제외) *국내주식 소수점 수수료 우대 혜택은 이벤트 기간 내 국내주식 소수점 주문 이용 등록한 시점부터 3년간 적용 (신청증시~3년간) *국내주식 매수쿠폰은 이벤트 신청일 기준, 익월 초에 일괄 지급 *국내주식 매수쿠폰 유효기간은 일주일 부여되며 미 사용 시 환급 소멸됨 *국내주식 매수쿠폰은 MTS(원큐프로) >나의정보/고객센터>MY/앱판리>1Q쿠폰 또는 MTS(원큐스틱) >더보기 >쿠폰에서 확인 가능 *국내주식 매수쿠폰 사용 전 세부 이용 조건 및 쿠폰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국내주식 매수쿠폰은 국내주식 거래 가능 종합/우탁계좌에서 사용이 가능(종가형SA 계좌, 하나은행 예수금 방식 계좌에서 사용 불가) *쿠폰 사용은 전 마케팅에서 가능하며 사용내역 확인은 MTS(원큐프로, 원큐스틱)에서 가능 *쿠폰을 등록한 다음 영업일로부터 쿠폰금액에 대한 주식주문이 가능하며 주문이 체결되면 1영업일 이내 쿠폰 사용금액이 예수금으로 입금됨 *추첨 경품은 이벤트 종료 후, 익월 내 지급 *추첨 경품 제공 시 제세공과금 22%는 당사 부담, 캐스퍼의 경우 취등록세는 당첨자 본인 부담 *본 프로모션은 개인(신용) 정보 산업체의 및 마케팅(SMS)수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됨 *부정확한 개인정보로 인해 경품을 수령하지 못할 시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증정일 기준 개인(신용) 정보 산업체의 관련 철회가 있을 경우,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 * 경품은 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 비슷한 기준의 경품으로 변경 가능



이벤트 바로가기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0~100%)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수수료는 0.2%(온라인/오프라인 등일, 원미만 절사이며 유관기간 수수료, 거래세, 소수단위거래 유관기관(KSD)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음 *모든 국내주식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 필요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함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과 체결사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소수 단위 주식은 타증권사로 대체 불가능 (소수 단위 주식 보유 분에 대해서도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참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828호(2023.08.04~2023.12.31), CC 브랜드 230801-0010

하나증권

일본 오염수 방류에도 부산공동어시장 경매가격 '이상 없어'



부산공동어시장 위판 현장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국내 수산물 시장에는 오염수로 인한 여가 하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일 국내 수산물의 30%가 유통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어종별 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산물 위판(경매)량은 총 1만7천394t, 위판액은 4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오염수가 방류된 8월 위판량인 1만6천360t에 비해 물량은 6% 늘었고, 위판액은 8월 328억원에 비해 12%가 증가한 것이다. 9월 위판량과 위판액은 오염수 불안심리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에서도 늘어났다.

지난해 9월 위판량은 1만2천916t, 위판액은 28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위판량이 26%, 위판고는 34%가 늘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위판량을 금액으로 나눈 수산물 kg당 단가로 비교해 볼 때도 올해 9월 전체 수산물 단가는 kg당 2천41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kg당 2천181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을 대표하는 10개 어종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8~9월 사이 경매가격은 대체 하락 등 특이사항 없이 어종별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등락률을 달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자미와 갈치, 참다랑어, 병어, 삼치 등 5개 어종은 오염수 방류 이후 가격이 올랐고 고등어, 눈불대, 병어, 전갱이, 오징어 등 5개 어종은 가격이 내렸다. 가자미(종)의 경우 9월 가격이 kg당 6천452원으로 8월 5천816원보다 10% 높았고, 참다랑어의 경우도 9월 가격이 kg당 4천190원으로 8월 2655원보다 상승했다.

삼치의 경우 9월 가격이 kg당 4천748

원으로 8월 단가인 4천259원보다 11% 올랐고, 병어의 경우 9월 kg당 1만8천570원으로 8월 7천295원보다 2.5배 상승하기도 했다.

반면 고등어는 9월 kg당 5천966원으로 8월 7천82원보다 14% 떨어졌고, 눈불대는 8월 1만170원으로 8월의 1만1천664원보다 13% 하락했다.

방어는 9월 kg당 726원으로 8월 1천535원에 비해 53% 내렸고, 오징어도 9월 가격이 직전 달보다 47% 하락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는 "현재 어가는 조업량의 변화나 생물의 신선도 등에 따라 가격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오염수 불안 심리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목인 추석이 끌어있고, 오염수가 아직 국내에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보이는데 가격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이형철 기자



(건 원주영상미디어센터장)의

식농성 중단과 아카데미 철거여부

단식 농성 중단과 철거 여부 여론조사 촉구 기자회견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단식 보름째

"여론조사로 결정"

다.

이어 "갈등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만큼 시민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아카데미극장 철거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변 전 센터장은 시가 석면 지붕 해체에 이어 본 건물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자 시정토론과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철거 여부 결정을 호소하며 지난 달 20일부터 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963년 9월 23일 문을 연 아카데미극장은 국내에서 스크린을 한 개만 갖춘 단관극장의 원형을 가장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로 개관 60주년을 맞았지만, 그와 동시에 건물의 완전 철거가 임박한 상황이다.

/ 한민수 기자

경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호응 이용자 98% "만족한다"

경남도가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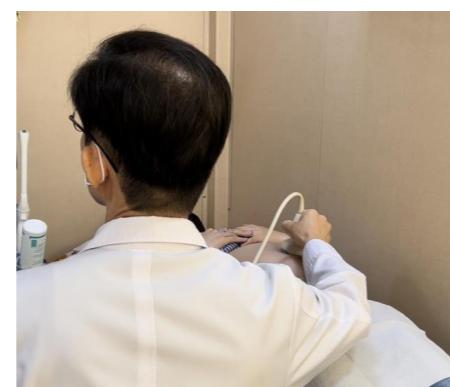
경남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 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자 98%가 만족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로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위탁받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지난 8월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서면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이 결과 응답자 98%는 "검진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변 주민에게도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소개할 것이다"는 응답도 81%나 됐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간 병의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병원이 너무 멀어서'(28%)를 이유로 들었다.



경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의사·간호사·임상 병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이동 겹진반이 의료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임신부, 가임 여성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3개 지역에 매달 3~5회 정도 순회진료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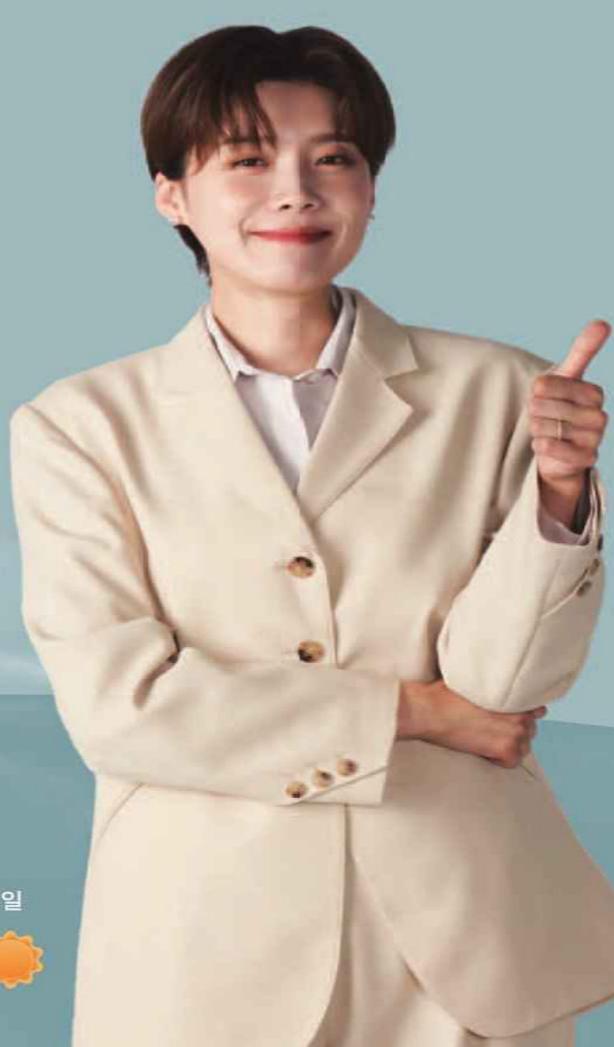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검사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도 나오는 등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 장수경 기자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후날씨
맑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야생음식 즐겨요"…6~8일 제11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모습

6일 오후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가수 흥진영과 정동원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또 축제장 곳곳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미술 공연, 체조 대회, 접시 타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보물찾기와 맨손 물고기 잡기, 인공 암벽등반, 뱃머기 잡기, 야생 음식을 체험하는 '와일드 푸드 파이어' 등도 열린다.

7일에는 완주 출신의 개그맨 김병만, 창작과 표절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가 '카피주'가 무대에 오른다.

박명수와 코요테가 함께하는 EDM 맥주파티도 축제의 밤을 장식한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로컬장터도 열린다.

완주군은 군청과 민경강 봉동교, 고산미소시장, 고산초, 전주역, 우석대 등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 남연우 기자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물건 1건 이상 중개 대상…14건 중개도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도내 공인중개사 362명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의 계약을 1차례 이상 중개한 이들이다.

특별점검 대상 공인중개사 가운데 5건 이상 중개한 인원이 10명이었고 이 중 1명은 14건의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 금액은 2천만~6억1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1억원대(1억 원 이상~2억원 미만)가 47.8%로 가장 많



았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하는 등의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 송진영 기자

SAMSUNG

구형 TV 중고로 팔려야 새 TV로 바꾸자는
경제관념 확실한 우리 아내

상 받을 만해



TV를 바꾸려면 바로, 지금.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최대 100만 포인트 보상 혜택부터 Neo QLED 189cm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지금 전국 삼성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만나보세요.

2023.06.01~07.31

Neo QLED 8K | Neo QLED | QLED | OLED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 최대 100만 포인트는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지급. 멤버십 가입이 필요하며 경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입 모델은 189cm 이상 Neo QLED와 OLED 247cm QLED를 대상으로 합니다.

| 1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2022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황선홍호, 금메달 향한 ‘마지막 한 걸음’…7일 운명의 한일전

5년 전 ‘연장 승리’ 이어 2회 연속 결승 격돌…‘득점왕 유력’ 정우영 등 활약 기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패권을 놓고 ‘황선홍호’ 태극전사들이 다시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에 나선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24세 이하(U-24) 축구 대표팀은 7일 오후 9시(한국시간)부터 중국 항저우의 황룡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을 치른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향해 남은 마지막 한 경기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9-0), 태국(4-0), 바레인(3-0)을 상대로 실점 없이 16골을 몰아쳤던 대표팀은 16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을 5-1로 완파했고,

중국과의 8강전 2-0, 4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을 2-0으로 이겨 결승에 올랐다. 특히 개최국 중국과 ‘연령별 대회의 강호’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만나는 고비를 침착하게 넘으며 3회 연속 금메달의 희망을 밝혔다.

대표팀은 이번 경기 6경기를 치르는 동안 25골 2실점을 기록하며 전승을 내달리고 있다.

유럽파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까지 7골을 몰아치며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점차 한 팀으로 단단해지며 난적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마지막 관문까지 올랐는

데, 하필 마지막 상대가 일본이다.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6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선 황선홍 감독이 이끈 대표팀이 0-3으로 완패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홍현석(핸트), 조영우(김천) 등 이번 대표팀의 주축 선수가 당시에도 대표팀에 포함됐던 터라 이번 맞대결은 ‘설욕전’ 성격도 지난다.

황선홍 감독은 다시 한일전으로 성사된 결승전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승리해야 한다”면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겠다. 다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회 남자 축구엔 1999년생 이하

선수가 출전할 수 있고, 24세가 넘는 ‘와일드카드’를 3명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일본은 이번 대회 2001~2004년생의 젊은 선수들로만 팀을 꾸렸다.

대다수가 자국 프로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브라질에서 뛰는 해외파가 일부 포함돼있다. J리그 가시마 앤틀리스 사령탑을 지낸 오이와 고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3개 팀만 경쟁한 조별리그 D조에서 카타르에 3-1, 팔레스타인에 1-0 승리를 거두며 1위를 차지했고, 16강에서 미얀마(7-0), 8강에서 북한(2-1), 준결승에서 홍콩(4-0)을 차례로 따돌렸다. 팀 내 최다 득점자가 3골(우치노 고다로)을 기록 중이며, 8명의 선수가 골 맛을 봐 고른 득점 분포와 조직력이 특징으로 꼽힌다.

대표팀 주장 백승호(전북)는 “아무리 어려도 일본은 조직적으로 짜임새가 좋고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이라며 “일본이 최고 전력으로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 하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준비해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최준용 기자



5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이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캠퍼운드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오유현, 조수아, 소체원이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성현 감독님과 금메달 약속 못지켰네요”

울어버린 오유현

오유현(34·전북도청)은 ‘은사’ 박성현 전북도청 감독의 이름이 나오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5일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캠퍼운드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 대표팀의 맨언니로 동메달 획득에 앞장선 오유현은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선수다.

따내는 등 톱 레벨의 캠퍼운드 궁사로 떠올랐다. 2022년에는 월드컵, 아시아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해 많은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항저우로 올 궁사를 가리는 2023년도 국가대표 선발전과 평가전에서는 선두를 질주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박성현 감독 권유로 리커브에서 캠퍼운드로 전향

서른넷에 따낸 첫 AG 동메달

오유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를 따라 리커브 양궁에 입문했다.

하지만 리커브 선수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살의 나이에 어깨 부상이 찾아와 은퇴의 갈림길에 서야 했다.

이때 박성현 전북도청 감독이 그를 불잡고 캠퍼운드 양궁으로 전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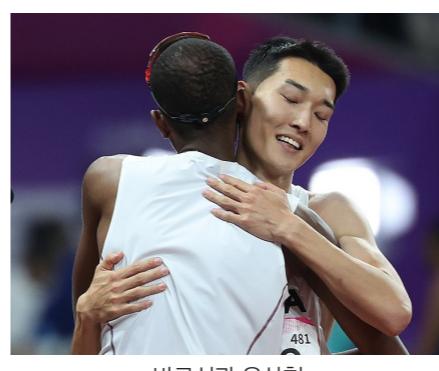
박 감독은 2004 아테네 올림픽과 2001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 2006 도하 아시안게임, 2005 뉴델리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 한국 양궁 최초로 개인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예전드’다.

시상식 뒤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난 오유현은 “아쉬움이 크지만, 무엇보다 값진 동메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현 감독님이 대견스러워할 것’이라는 한 기자의 말에 오유현은 활짝 울어버렸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오유현은 “금메달 꼭 목에 걸고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감독님과 약속했는데 못 지켰다”면서 “응원해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이형찬 기자



바르심과 우상혁

하면서 순위가 같렸다”고 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결과는 아쉽지만, 내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1위) 장마르코 텁베리, (아시안게임 1위) 바르심이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겠다”고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의욕을 드러냈다.

바르심도 우상혁과의 승부를 즐겼다.

/ 민도현 기자

우상혁 “바르심과 대결 즐거웠다…파리올림픽에서는 내가 꼭”

바르심과 치열한 승부 끝에 2위…“바르심과 경쟁하며 나도 성장”

우상혁(27·용인시청)은 ‘현역 최고’ 무타즈 예사 바르심(32·카타르)과의 치열했던 승부를 복기하며 “동경했던 바르심과 같은 높이에 바를 두고 경쟁하는 게 정말 영광”이라고 했다.

금메달을 바르심에게 내준 뒤에도 우상혁은 특유의 밝은 표정으로 바르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에서는 바르심을 넘어서겠다”는 의욕은 더 커졌다.

우상혁은 4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3을 넘어 2위를 했다. 바르심의 기록은 2m

35였다. 역대 아시안게임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3을 넘고도 우승하지 못한 건 우상혁이 역대 두 번째다.

2014년 인천 대회에서 장궈웨이(중국)이 2m33으로 2위를 했는데 당시 금메달 리스트도 바르심이었다. 바르심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역 최고 점퍼’다.

그는 2017 런던, 2019 도하, 2022 유진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하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장마르코 텁베리(이탈리아)와 공동 1위에 올랐고, 2m43의 역대 2위 기록(1위는 하비에르 소토마요르의 2m45)도 보유했다.

바르심은 무려 11번이나 2m40 이상을

넘어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우상혁은 이런 바르심이 인정하는 점퍼로 도약했다. 이날 패배로 둘의 상대 전적은 우상혁 기준 2승 10패가 됐지만, 바르심을 2번 이상 이긴 것도 높이뛰기 선수들에는 큰 자랑거리다.

하지만 우상혁은 그 이상을 원한다. 우상혁은 “바르심과 경쟁하는 게 정말 재밌다. 내 재능을 더 끌어내 주는 선수”라며 “오늘도 2m33까지 둘이 함께 모두 1차 시기에 넘으면서 경기가 재밌어졌다. 사실 2m33까지 1차 시기에 넘고서 다음에 승부를 보는 전략을 세웠다. 2m33까지만 잘 왔는데 2m35 1차 시기에서 실패

하면서 순위가 같렸다”고 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결과는 아쉽지만, 내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1위) 장마르코 텁베리, (아시안게임 1위) 바르심이 나를 무서워하게 만들겠다”고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의욕을 드러냈다.

바르심도 우상혁과의 승부를 즐겼다.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리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기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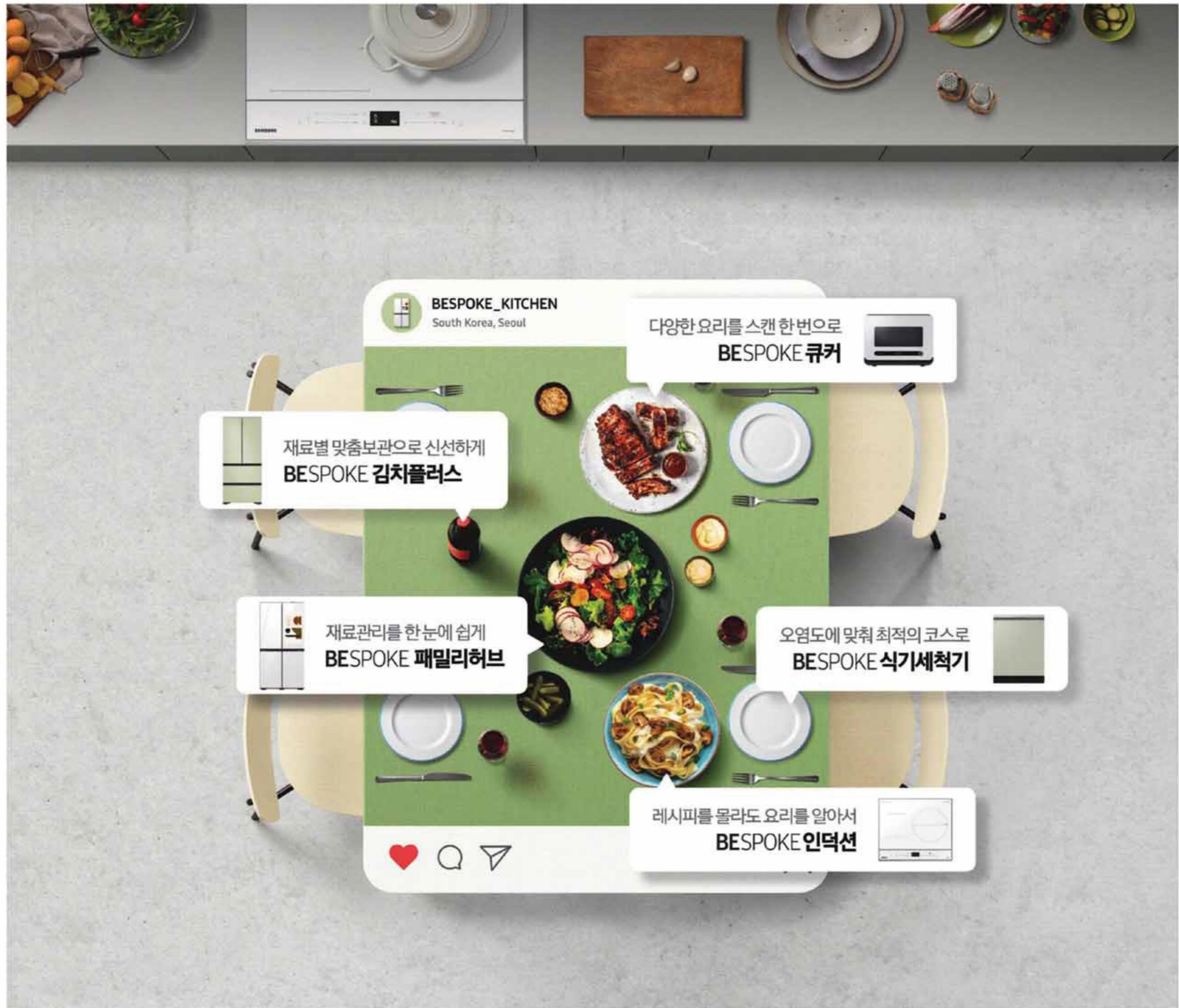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



SAMSUNG



집밥은 실전.

보여지는 한끼를 위해 재료관리, 불조절, 마무리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으니까
비스포크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서.

BE SPOKE 키친



가전을 나답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조작 기능은 SmartThings 앱 및 웹 및 안드로이드 및 iOS 기기에서 사용 가능. *SmartThings 앱은 Android 및 iOS 기기에서 사용 가능(Android OS 5.0 이상 지원). *해당 내용은 SW 업그레이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설계 조리 시 사용 환경,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조리 시간이 달라지거나 조리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는 별도 구입 필요. *설계 사용 가능. 용기용량 100%, 용기재질 스티아리스, 사이즈(DxWxH): 600x20x10 cm (수건 용기 제외). 용기재질: 청자. *설계는 서비스에서 구매 가능(제작일로부터 2023년 5월 기준 148,000원) 가격은 추후 변경 가능. [큐커 - 스캔체크] *리모시 간접식 일기록과 현장마다 이용 가능하여 주후 각 식품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큐커: 27kg / 태이스터너: 10kg / C: 26kg / 청자: 25kg / 해바라기: 25kg / 대금: 25kg / 유후인: 24kg / 유흥: 14kg (DxWxH: 40x40x10cm). *인증식스캔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은 탑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AI 맞춤 세팅 AI 맞춤 세팅은 고객 설정을 통해 가능. [김치 - 냉장사진제작] *보관기간은 차세대에 따른 것으로 속도로 확장할 수 있는 관성팀이며 실제 속도로 적용 가능. *AI 맞춤: 프로필 + 상상 계정의 연동된 경우에 사용되는 기본 사용 가능. (설정 → 프로필 + 상상 계정 선택) *이용 전시 기능은 사용자의 형태,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